# “에틸렌 100만톤 크래커 가동 연기”

## NPC, 원료 공급 파이프라인 설계 이상으로 … 2005-06년 가동 예상

이란의 National Petrochemical(NPC)의 Assaluyeh 소재 No.9 Olefins 100만톤 플랜트의 가동시기가 착공 지연으로 9개월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동시기는 2004-05년으로 잡혀 있다.

NPC의 자회사인 Pars Petrochemical이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Pars는 당초 2001년 1/4분기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2002년 1월말로 수정했다.

Pars는 컴플렉스에 예정된 모든 플랜트의 기초 엔지니어링 작업을 완료한 상태이다.

컴플렉스 이외의 생산설비 건설계약자 선정도 연기됐다. 건설계약 후보자는 2001년 12월 상업 및 기술 입찰서를 제출하기로 돼 있었다. 기술 입찰서는 12월에 제출됐으나, 상업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이 2001년 말로 연기됐다.

컴플렉스 이외의 생산설비 계약에는 저장탱크와 파이프라인 등의 설비 건설이 포함된다. 설비 완공에 2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LG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입찰 참여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South Pars의 가스 프로젝트의 2/3단계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파이프의 직경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프로젝트 연기의 원인이다. No.9 Olefins 프로젝트는 총 12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1단계와 2/3단계에서 원료를 확보하기로 예정돼 있다.

배설된 원료 공급 파이프라인의 직경이 32인치인 반면, Pars의 도면에는 36인치로 설계돼 있다.

NPC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1월12일 이란의 건설계약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했다. NPC는 예기치 않은 문제로 Pars가 장비의 일부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No.9 Olefins 프로젝트는 100만톤 크래커, HDPE/LLDPE 30만톤 플랜트, LDPE 30만톤 플랜트, Styrene 50만-60만톤 플랜트로 구성돼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3/05>*